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 4주일
제37권 18호(가해) 2017년 3월 26일

[묵상]



<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 >

보지 못할 때,
그 고통이 참으로 크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암흑 속에 깊이 묻혀 있는 까닭에
불행은 참으로 큰 것이다.

장님이 아니더라도
빛이 없으면 장님이나 다름없다.

글을 몰라도 역시 장님 이다.

격분해서 갈피를 못 잡고 이성을 잃으면
그도 같은 장님이다.

하느님의 그 아름다운 업적과 기묘한 안배,
놀라운 자비와 지극한 사랑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면,
이것은 정말 딱한 장님이다.

지옥 벌과 고통은
하느님을 영 못 보는 것이라지 않는가?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 222-3168
연령회 (장애시 연락처) : (310) 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트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제주 - ●요셉회 4제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 ~ 7:00(오후)
수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목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금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토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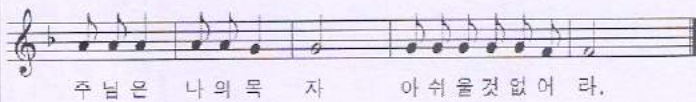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 이용식 베드로,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레이몬드 유금중 프란치스코
	(생)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주일 학생 미사	(연)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김정강 세실리아
	(생)
주일 낮 미사	(연) 송기분 수산나, 박정미 클라라, 변 안드레아 & 변율리안나, 서성용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김정례 수산나, 이이순 빈센트, 김종범, 김동영베드로, 전연옥 마리아, 오원순 안나
	(생) 이재용 안드레아가정, 손석 스테파노, 송마이클 미카엘 & 송미숙 미카엘라, 조갑제 & 조소영 수산나, 이근모 마리노 & 이형자 리드비나, 성실하신 동정녀 Pr. 단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 상(1 Samuel) 16,1.6-7.10-13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고,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
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
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5,8-14

복 음
환호송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 음 요한(John)9,1-41<또는 9,1.6-9.13-17.34-38>

영성체송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
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4. 현대 교회의 좌표(1984-2000년)

4-3. 북한의 신자 공동체

1998년 5월 현재 대략 3,000여 명의 신자들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한국 전쟁 이전에 세례를 받은 구교우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후반 이후 새롭게 영세 입교한 신
자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 지역 신자들은 남포(南
浦)와 원산(元山) 등지에 공소를 세우려는 노력을 전개
하고 있었다. 현재 북한에는 단 한 명의 성직자나 수도자
도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신앙 공동체는 평신도·수도자·
성직자로 구성되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7성사가
모두 집전되고 교계 제도를 갖춘 완벽한 교회에는 이르
지 못하고 있다. 비록 북한의 신앙 공동체가 이렇듯 평신
도 지도자들을 통하여 인도되고 있다 하더라도, 가톨릭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일부임이 확인되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합당한 세례를 통해서 형성된 신자들의 조직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교구 민족 화해 위원회는
1999년 말 현재 10여 회에 걸쳐서 북한 신자들과 접촉
하며, 북한 복음화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냉해와 홍수, 해일 등과 같은 자
연 재해로 북한은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
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졌다. 한국 교회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북
한의 기근을 돕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민족 화해 위원
회에서는 북한 돕기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된 금액 60억
여 원으로 식량과 비료 등을 구입하여 북한 주민들을 지
원한다. 서울대교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도
북한의 기근 피해자를 돕기 위한 노력이 인도주의적 차
원에서 전개되었으니, 이러한 북한 동포에 대한 교회의
지원은, 현대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구원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인류에 또는 동포에
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하였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57	157	149
봉헌	269	269	268
성체	106	106	303
파견	158	158	103

마음의 눈을 뜨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예전에 사목했던 성당 근처에 맹인학교의 선생님이 한 분 사셨습니다. 태생 소경이었던 그분은 맹인학교 침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주일 저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음악 방송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요와 가곡의 노래를 들으면 한 주일의 피로가 풀린다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주 그 선생님은 “신부님! 어제 그 가수의 가사도 좋고 표정도 너무 좋던데요. 정말 재미있게 보았어요”라고 즐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내가 어렵게 “선생님! 외람된 질문이지만 선생님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인데 왜 ‘본다’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은 미소를 띠며 방송 중인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광경, 특징, 행동들을 막힘 없이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못 보고 지나치고,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귀나 촉각으로 본답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없는 능력이 있어 우리 나름대로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하긴 얼마 전 목소리만 듣고 내 나이와 외모, 성격 등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본다는 것은 사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보고 있어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을 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히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더구나 편견을 가지게 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주인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기적을 베풀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람들은 이 기적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비난한 합니다.

마음의 눈을 뜬 자만이 진리를 볼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불우한 이웃을 내 형제로 보고, 주님의 눈으로 이웃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의지와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기쁨이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린 시절 소풍 때 보물찾기에서 선생님들이 꼭꼭 숨겨 놓은 보물 딱지를 찾은 기분일 것입니다.

보물을 찾게 되면 아이들은 탄성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게 됩니다. 수풀 속에서 보물 쪽지를 발견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잘 모릅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고 멀지 않은 내 곁에서 보물을 발견하세요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어느 날의 일기

마감 넘긴 원고로 고민하다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원고는 끝나 있었고 심지어 명문장이었다.
기적이다.
깜짝 놀라 눈을 뜨니 꿈이었다.
혹시나 파일을 여니 그대로였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신앙처럼.
내가 가만있으니 신도 가만있더라.
내가 의지를 보일 때
그제야 신도 기척을 내시더라.

-이 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유지아 클라라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교복 레오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데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4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자벳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 미사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3/31(금)- 소공동체
4/7(금)- 본당 꾸리아
4/14(금)- 안나회 (오후 3시에 합니다.)

- ◆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4월 4일(화요일)
재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사순절 희생 애공 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 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13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평일 미사시간 임시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부활절 판공성사 출장관계로
3월28일(화요일) 평일 미사가 없습니다.
4월4일(화요일) 본당 판공성사로 미사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 교실, 화장실, 부엌, 친교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 청소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26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 반별로 배정
● 문의 : 김준 방지거 소공동체부장 ☎(310)625-3312

- ◆ 다음 주일 11시 미사 후 영화상영(벤허)있습니다.

◆ 배론청년회 일일피정

- 일시 : 4월1일 12:00pm~8:00pm
- 장소 : 성당

◆ 백삼위 주일학교 성경쓰기

- Book of Matthew 마태복음
- 마감일: 4월 9일 Palm Sunday
- 담당 주일학교 선생님께 제출
- 문의: 황선준 플로렌시오 ☎ (310)658-6654

◆ 2017년도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 일시: 3월 26일 오후 2시~3시
- 장소: 2층 유아실

◆ 2017년도 TOPIK 한국어 능력시험

- 일시: 4월 15일
- 장소: LA 한국교육원

◆ 2016~17년도 단어경시대회

- 일시: 4월 16일
- 장소: 백삼위 한국학교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 26일: 우거지국 (\$ 0, 토동 2,3반)
*주일학교 : 쇠고기 주먹밥 (K,1학년)
- 4월 2일: 김밥(\$4) 사발면 (\$ 2, 토북 봉사담당)
*주일학교 :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8,10학년)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강태홍 국세찬 김경자 김교복 김대우 김병조 김상근 김성택 김옥보 김원규 김 준 박진선 박혜정 반정이 성미선 신순철 안민수 오명섭 오명섭 원진희 유보나 윤화경 이미예 이현주 정동호 지경수 최길주 최동한 한 영 황인중 이크리스	합계:\$ 4,540
주일미사헌금 : \$ 2,553		
성전헌금	강미순 김교복 김대우 김병조 김 준 신순철 안민수 오명섭 원진희 윤화경 이미예 이현주 정동호 지경수 최길주 황인중 이크리스	합계 : \$1,360
감사헌금:\$200(성낙호)		

◆2017 성령쇄신 봉사자 세미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지소서"
(루카 1,38)

- 일시: 5월 19일(금) 오후 3시~21일 (주일) 2박3일
- 장소: 아씨시 피정센터(Poverello of Assisi Retreat House)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강사: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
(중남부 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예수회소속)
- 참가대상: 각성당 기도회원 및 관심있는 신자
- 준비물: 성경, 묵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및 타올, 컵
미사 지향 및 주일헌금
- 참가비: \$130.00(숙박비 포함)
- 문의: 본당 성령기도회장 강혜원아네스 ☎(310)780-0369
봉사회 교육부 권글라라 ☎(562)228-5629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K.C.R.M)714-343-4771

남가주 소식

◆2017 남가주 청년 연합회 주최 캠프 '섬표'

2017년 남가주 청년 연합회 UYKC 주최 청년 캠프인 제 6회 '섬표'가 5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2박3일간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센터에서 있습니다. 남가주에 있는 많은 한인 카톨릭 청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공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여호1, 9)"
- 일시: 2017. 5. 19(금) ~ 21(일) 2박 3일
- 장소: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37885 Woodchuck Rd 79 S Temecula, CA 92592
- 대상: 미혼 한인 카톨릭 청년 누구나
- 참가비: \$130
- 신청: 연합회 회장 임성오 바오로(714)388- 2366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예수성심 피정의 집에는 여러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과 청소년 캠프장도 들어서고 생명 운동의 일환으로 유기농 작물도 생산할 것입니다. 모든 성당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피정의 집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을 도와주십시오!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베히틸다 713-4926	남명자 데레사 03/1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신중철 아브라함 03/11(토) 오후6시 미쿠리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03/17(금)오후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박동수 베드로 03/11(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금동균 이나시오 03/11(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 크리스찬 레지나 03/18(토)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십자가의 길로 대체 03/31(금)오후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03/20(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전하현 마리아 03/11(토)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김진우 사도요한 03/18(토)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조소영 수산나 03/10(금) 오후7시 성당2층R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송중두 요한 03/18(토)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이정미 아네스 03/10(금)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십자가의 길로 대체 03/31(금)오후7시30분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김은경 올리안나 03/14(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본당의 복음자리]

본당이 우리 집 아납니까?

우리 본당 어르신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연세가 많으심에도 당신 몸 아끼지 않으시고 이제나저제나 본당 걱정이 많은 분이십니다. 본당 건물이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페인트칠이 벗겨진 곳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페인트칠을 하고 계십니다. 곳은 날씨라도 상관없이 본당 안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보이면 그저 묵묵히 손에 연장을 들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비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본당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시는 모습에 본당 사목자로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께 여쭙보았습니다. 이날도 땀을 뻘뻘 흘리시며 담벼락의 페인트칠이 벗겨진 곳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일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의 질문에 어르신께서는 얇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본당이 우리 집 아납니까? 우리 집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힘든 게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요.”

어르신의 대답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에 본당을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평상시 어르신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당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본당을 위해 하는 일이 그 어떤 일이라 해도 자발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당을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며 늘 아끼고 가꾸는 어르신 덕분에 우리 본당 곳곳은 언제나 환하게 빛이 납니다.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늘 밝게 웃으시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본당 사목자로서 감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강정웅 신부 / 반송성당 주임

잘 알지도 못하면서

2009년 개봉한 한국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 대해 다 아는 척 판단하는 이들에게 일침이라도 가하듯,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당신이 감히 나를 어떻게 알지요?’라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았던 이 영화가 오늘 문득 떠오릅니다.

영화가 떠오른 김에 제가 몇 달 전 겪은 일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어폰 챙기는 것을 깜빡 잊고서 급하게 오른 지하철. 하는 수 없이 그날은 음악 대신 지하철 안내방송을 들기로 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지 않고 서 있으니,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에 귀가 기울여질 때쯤, 제가 서 있는 바로 옆 노약자석 쪽에서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왜 저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있어?!” 그 소리에 돌아보니, 정말로 노약자석의 노인분들 사이에 한 젊은 여자분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도 하나 둘씩 “젊은 사람이 참....” “끝까지 안 일어나네.” 하며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 ‘왜 젊은 사람이 저기에 앉아있는 거지. 참 뻔뻔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옆에 앉아계시던 한 할아버지께서 점잖으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저분도 노약자석에 앉아있을 만 하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찬찬히 자세히 보세요. 저분 눈이 안 보이잖아요. 시각장애인 아닙니까.”

‘응? 시각장애인이라고?’ 놀란 맘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상에.... 왜 미처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녀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가방에 반쯤 가려져 있던 지팡이도 그 제서야 뚜렷이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할아버지의 말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화낼 일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예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무언가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세히 그분을 바라보니 당연한 듯 경솔하게 판단해버린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사실에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 것 같아 너무 죄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너무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지요. 노약자석에 당연히 앉아야 할 시각장애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가르치며 제 생각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개개인이 모두 존중 받고 사랑 받아 마땅한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들로서 서로를 사랑 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진실은 우리를 지으신 하느님만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주십사 그분께 청하고 싶습니다.

◆ 손여은 카타리나 / 배우

미사 때 고백 기도를 바치면서 가슴을 '세 번'치는 의미는?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 3)시편 51편은 구약의 위대한 성왕(聖王)이라 불리는 다윗이 큰 죄를 짓고 고백하는 참회의 내용을 시로 담고 있습니다.

미사의 시작 예식에서도 사제와 신자들은 공동으로 죄를 참회하는 고백 기도를 바칩니다. 사제가 먼저 “전능하신 하느님과”라고 운을 띄우면 교우들이 뒤따라서 같이 합송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세 번 칩니다. 가슴을 ‘세 번’ 치는 뜻은 우리가 세 가지로 즉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자녀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을 후회하고 아파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죄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부당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죄스러움을 진정으로 시인하는 것은 용서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는 “주님, 가련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리스도인의 겸허한 기도의 기본자세를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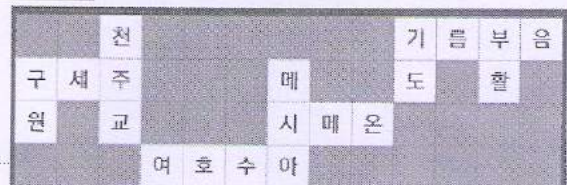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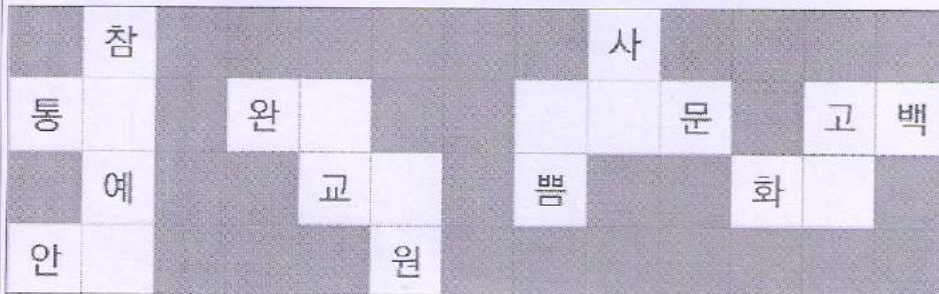
소죄(小罪)의 경우 이 참회예식을 통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독서와 복음을 들으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대죄(大罪 : 십계명을 어긴 죄)의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백 기도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즉 하느님과 모든 성인과 천사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부분과 성인들과 천사들에게 전구를 청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받기에 앞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며 고백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보듯이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 고백 기도를 드리면서 가슴을 세 번 치는 뜻은 완전한 뉘우침, 완전한 통회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면 소소한 잘못들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사도 13,38)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 교정

Quiz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우세요.



(3월 19일자 정답)

「성경 속 동식물」 12 초대교회 믿음의 상징 물고기

박해시대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암호의 한 형태로 물고기를 그려 넣어 신앙을 확인했다.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익투스’(ΙΧΘΥΣ)라 하는데 예수(Ιησους 이예수수),

그리스도(Χριστος 크리스토스), 하느님(Θεου 테우), 아들(Υιος 휘오스),

구세주(Σωτηρ 소테르)의 첫머리 글자만을 따면 물고기 ‘익투스’(ΙΧΘΥΣ)가

되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ΙΧΘΥΣ)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으로 신앙고백의 의미를 가졌고 초대교회 믿음의 상징이 됐다.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직급/장례계획/모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연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요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점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플베다길

##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지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